

## Contents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APM-Maersk, 컨테이너선 운항 척수 세계 1위



### 물류정책·산업동향

1. 영국, 브렉시트 이후 국제무역 위한 자유항 지정 준비
2. PSA, 북미 할렘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3.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장비·시설 부족으로 체선 심각
4. 미, 9개 신규 해상 고속도로 프로젝트 선정

### 명사 스피치

“지금도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류가 전 산업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물류IT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계주 커버스토리/밸류체인씨엔티(주) 대표이사  
(2019. 8. 8. / 코리아슈핑가제트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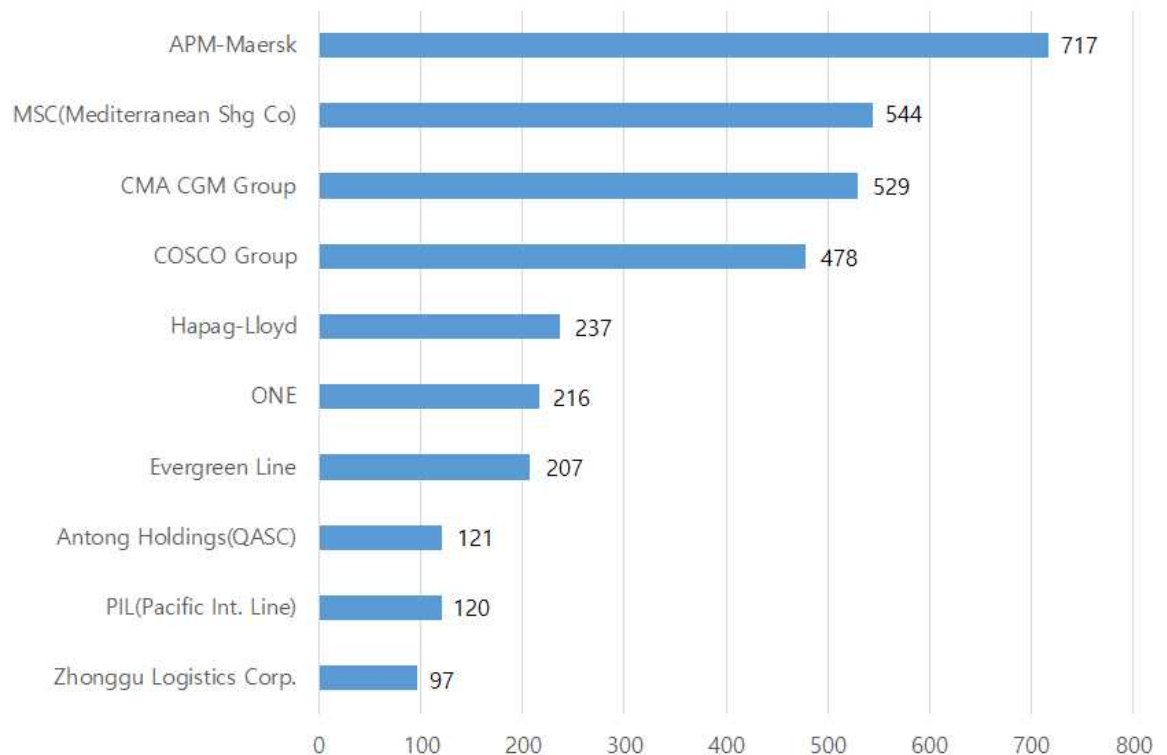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APM-Maersk, 컨테이너선 운항 척수 세계 1위

운항 척수 기준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 순위 (2019년 7월 24일 기준)

(단위 : 척)



자료 : www.statista.com

- 소유·용선 선박 척수를 기준으로 세계 1위 컨테이너 정기선사는 APM-Maersk사(717척)이며 2위는 MSC(544척)로 나타남
- 20FT와 40FT 표준 컨테이너가 전 세계 운송 컨테이너의 80%~90%를 차지하고 있음
  - 1950년대 컨테이너 발명과 1960년 후반~1970년 초반의 컨테이너 규격제정 및 표준 컨테이너 도입으로 일관수송이 가능하게 됨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APM-Maersk사는 약 400만 TEU의 컨테이너 적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717척 중 401척은 용선 선박임

■ 참고자료 : www.statista.com, 2019.8.7 검색

류진아 연구원

051-797-4788, jaryu@kmi.re.kr



## 영국, 브렉시트 이후 국제무역 위한 자유항 지정 준비

- 자유항은 영유국의 무역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유항은 영유국의 관세권 밖에 위치하며, 자유항으로 수입된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sup>1)</sup>
- 자유항은 화물 수·출입, 보관 및 가공을 관세권 밖에서 수행할 수 있게 하며<sup>2)</sup>, 이는 영유국의 무역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국 티즈항(Teesport) 전경

자료 : <https://www.gazettelive.co.uk/business/business-news/teesport-new-freight-services-belgium-15028990> (2019.08.03.)

- 영국 국제통상부는 최대 10개의 새로운 자유항을 지정할 계획임

- 지난 8월 2일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리즈 트러스(Liz Truss) 장관은 브렉시트 이후의 국제무역에 대비하기 위해 자유항 자문 위원회(New Freeports Advisory Panel)를 구성할 것임을 알림
-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대 10개의 자유항을 새로 지정할 예정임
- 영국항만협회(the British Ports Association)는 티즈항과 같은 무역 중심 항만뿐 아니라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이나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항만 등도 잠재적 자유항이 될 수 있음을 밝힘

■ 참고자료 : <https://www.gov.uk/government/news/trade-secretary-announces-freeports-advisory-panel-will-ensure-uk-is-ready-to-trade-post-brexite>, 2019.08.03.

<https://www.britishports.org.uk/news/bpa-responds-to-dit-free-ports-announcement>, 2019.08.03.

서정용 전문연구원

051-797-4676, jseo@kmi.re.kr

1) <https://fullfact.org/europe/free-ports/>, 2019.08.03

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68131&cid=64628&categoryId=64628>, 2019.08.03



## PSA, 북미 할텀 컨테이너 터미널 인수

- 싱가포르의 터미널 운영사인 PSA는 MIRA(Macquarie Infrastructure and Real Assets)의 관리 펀드로부터 캐나다의 할리팩스항(port of Halifax) 내 할텀(Halterm) 컨테이너 터미널을 인수함
  - 할텀 컨테이너 터미널은 캐나다 동부 연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미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중 하나로 할리팩스항 입구에 위치해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터미널임
  - 또한 캐나다 동부에서 1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터미널이며 토론토, 몬트리올 및 미국 중서부 지역과 직접 연결된 온-도크(on-dock) 레일을 보유함
  - 할텀 컨테이너 터미널은 최대 수심 16m의 약 1km의 선석연장에 총 3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음
- 할텀 터미널은 2020년까지 추가 선석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 확장 계획에는 5번째 슈퍼 포스트 파나마스급(Super Post-Panamax)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2대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할리팩스 항은 150개 이상의 국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매년 약 15억 달러 수준의 경제 효과를 창출함
- PSA 그룹의 탄충멍(Tan Chong Meng) CEO는 “앞으로 할리팩스 항만당국, 고객, 직원,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제철도공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할텀의 기능과 연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참고자료 : [www.porttechnology.org](http://www.porttechnology.org), 2019.8.1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mailto:kyh@kmi.re.kr)



##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장비·시설 부족으로 체선 심각

- 올해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로 64위를<sup>3)</sup>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항만 비효율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
  - 치타공항은 최근 하역장비 확충과 카르나푸리강(Karnaphuli River)의 준설로 하역작업 효율성이 다소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작년 치타공항은 기록적인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치타공항만의 극심한 정체(congestion)로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수입화물 및 원자재 하역에 약 8~12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 이슬람 축제인 Eid-ul-Azha 기간에는 이러한 상황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수출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 컨테이너선의 입항지연으로 인해 정시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운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최근 5월부터 항만 정체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항만당국은 이 시기에 발생한 사이클론과 이슬람 축제 Eid-ul-fitr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치타공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비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체선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치타공항 전경 및 위치



자료 : (좌) The Maritime Executive, (우) UNESCAP 홈페이지

- 치타공항은 오랜 기간 노동생산성 저하 문제와 장비·시설 부족으로 인해 낮은 생산성 수준을 보여 왔으며 향후 물동량 증가 시 비효율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해결되고 있으나, 장비부족 문제는 여전히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으로 무역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물 처리량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치타공항만의 혼잡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인근 몽글라항(Mongla Port)과 현재 건설 중인 파이라항(Payra Port)이 대체항만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현지기업들은 현재까지 대체 항만의 큰 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수도인 다카와 연결되는 파드마 대교(Padma Bridge) 완공 이후에는 신규 항만의 이용 가능성이 고려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짐

3) Lloyd's List서 2019년 7월 발표한 것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항만의 물동량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함. 2018년 기준 290만 TEU를 기록해 전년 대비 8.9%의 성장세를 보임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 참조)



■ 참고자료 : Hellenic shipping News 참조, 2019.8.5. 검색

김보경 연구원

051-797-4674, kimb@kmi.re.kr

## 미, 9개 신규 해상 고속도로 프로젝트 선정

- 미 교통부 산하 해사청(MarAd)이 9개의 해상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선정 발표했음
  - 8월 2일(현지시간), 해사청은 코네티컷, 플로리다, 미시건, 뉴욕, 오레곤,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주 및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에 도움이 될 9개의 신규 해상 고속도로 프로젝트 발표
-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AMHP·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은 배가 운항할 수 있는 수로로 기존의 육상 운송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
  - Elaine L. Chao 교통부 장관은 해상 고속도로를 운용하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혼잡한 육상 고속도로의 차량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의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AMHP)을 운영하는 교통부 장관은 신규 해상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선정이 되면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해상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미국 내 항만 및 조선소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육상의 교통 혼잡, 미국 내 도로 및 교량의 마모 감소 등으로 전반적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효율적인 화물 및 여객 운송 역량을 강화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킴
  - 화물 및 여객의 대규모 운송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음
  - 인구 밀집지역 밖으로 위험 물질의 이동을 가능케 해 공공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음

참고자료 : [www.marineinsight.com](http://www.marineinsight.com) / [www.maritime.dot.gov](http://www.maritime.dot.gov) 2019.8.6.

김성아 전문연구원

051-797-4792, ksa@kmi.re.kr